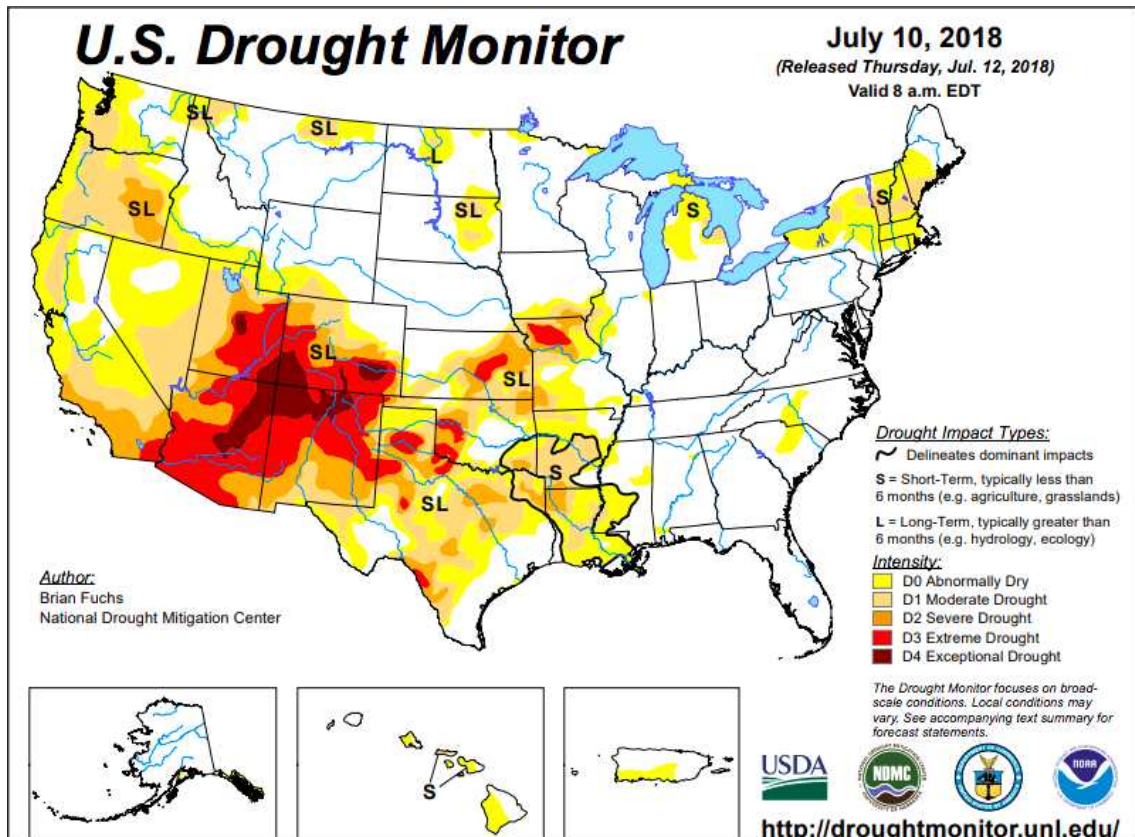


7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30)

□ 미국 기후 현황(7/15~7/21)

미국 전역에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서부 일대에서는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에 의한 피해지역의 면적은 3.9백만 에이커에 이르며,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연평균 피해면적인 3.5백만 에이커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부터 텍사스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최소 10°F 이상 높았다. 동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소나기도 한두 차례 내렸다. 남동부에서도 곳에 따라 2~4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 일대에서는 이번 비로 가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미시간, 미주리 등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도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16~7/22)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오클라호마 북부에서도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동부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지만, 서부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

□ 세계 기후 현황(7/15~7/21)

■ 유럽: 남부 유럽에서는 비가 내렸고, 북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잉글랜드 남부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독일 등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다. 북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지난 9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겨울에 파종한 작물의 수확량이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25~95mm 내외의 비가 내려 가뭄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그리스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부 유럽 일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서부 일대에서는 25~2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북부의 Caucasus 지역에서도 2~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일대에서도 10~2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난 60일간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몰도바에서는 10~7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벨라루스에서도 25~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동아시아: Heilongjiang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내몽고 일대에서도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반면, 중국 동부의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중국 동부에서부터 북부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고 있다. 한반도 일대와 일본에서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호주: New South Wales 북부와 Queensland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수확량 전망은 계속해서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남호주, Victoria, New South Wales 남부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도 누적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호주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벼, 보리 등의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주요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La Pampa, Buenos Aires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의 Chaco 남동부, Santa Fe 서부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반면, 북서부의 Santiago del Estero, Cordoba 북부 등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남서부의 주요 농업지역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그 밖의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다. La Pampa, Buenos Aire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고, Formosa, Chaco,



Corrientes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밀 파종률은 92%인 것으로 나타났고, Buenos Aires의 경우 밀 파종률이 83%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에서부터 Santa Catarin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에서는 주 후반에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do Sul, Sao Paulo 등에서는 맑는 날씨를 보였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6일 기준 밀의 개화률은 12%였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10~4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의 7월 20일 기준 옥수수 수확률은 66%였고, 면화의 수확률은 9%를 기록했다.